

조선인민군창건 70돐 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축하연설

영웅한 조선인민군 장병들!
조선인민군창건 일흔돐경축 열병식에 참가한 열병부대 지휘관, 전투원동지들!

친애하는 평양시민들과 온 나라 전체 인민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정규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신 일흔돐을 맞으며 조선인민군 전투부대들의 장엄한 열병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전 평양역 광장에서 거행되었던 정규무력의 첫 열병식이 신생조선의 장엄한 모습을 시위하였다면 오늘의 열병식은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발전된 강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상을 과시하게 될 것입니다.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자랑스러운 전투적행로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는 이 자리에서 나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가슴속에 차넘치는 크나큰 감격의 마음을 담아 주체적혁명무력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혁명의 무장을 역세계틀어쥐고 조국의 통일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친 항일혁명선열들과 인민군렬사들에게 송고한 경의를 표하며 건군절을 맞는 전쟁로병들과 제대군인들, 전군의 장병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전투적경례를 보냅니다.

또한 소중한 안아키운 아들딸들을 방선초소로 기꺼이 떠나보내고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인민군대의 전투력강화에 필요한 모든것을 최우선 마련하여 보내준 우리의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을 비롯한 온 나라 인민들에게 충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규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신 2월 8일은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신 4월 25일과 함께 혁명무력건설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날입니다.

변변한 군대가 없어 망국노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자기의 강한 민족군대를 가지는것은 일일천추 바라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인민이 품어온 이 세기적인 숙망은 70년전 바로 오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강력한 정규군대의 창설을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필수적요구로 내세우시고 탁월한 군건설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건군위업을 추진하시어 3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주체형의 혁명적정규무력인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였습니다.

조선인민군은 조선인민혁명군의 백절



조선중앙통신

불굴의 혁명정신과 풍부한 투쟁경험, 령활한 전법을 이어받은 명실공히 항일의 전통을 계승한 혁명군대입니다.

주체적인 정규군이 탄생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은 창건 첫날부터 자체의 튼튼한 무력적담보를 가진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로 당당히 등장하게 되었으며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제국주의침략군대를 타승하고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습니다.

우리 혁명무력의 력사적뿌리가 내린 1932년 4월 25일이 있어 강도 일제를 타승하고 조국해방의 성스러운 위업을 실현할수 있었으며 항일의 전통을 이어받은 정규무력이 탄생한 1948년 2월 8일이 있음으로 하여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위대한 승리가 있었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 전진도 이어올수 있었습니다.

조선인민군이 걸어온 력사적 전 로정은 일촉즉발의 위협을 배태한 세계최대의 화약고, 열점지역에서의 지속적인 긴장상태와 강도높은 대결전을 동반하였습니다.

조국보위, 혁명보위, 인민보위의 사명에 충실한 우리 군대는 자위의 군사로선과 일당백의 기치높이 적들의 모험적인 도발책동들을 걸음마다 짓부시었으며

이 나날 그 어떤 강적도 단매에 때려부실수 있는 불패의 전투대로로 장성강화되었습니다.

세계제국주의련합세력과 단독으로 맞서 억척도 지원도 없이 싸워야 했던 가장 준엄하고 어려운 시기에 인민군대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를 따라 혁명의 제일선에서 영웅적인 결사전을 벌리며 혁혁한 공적을 세웠습니다.

반제군사전선과 부강조국건설의 최전방에서 사회주의와 혁명을 보위하는 기수, 역척의 지지점이 되어온 최정예혁명강군이 있었기에 우리 공화국은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련전패승을 이룩하고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위용을 높이 떨치게 되었습니다.

동서고금의 그 어느 갈피에도 빈터우에서 자력건군의 대업을 실현하고 장기간에 걸치는 최악의 도전과 봉쇄속에서 최강의 무력을 키운 기적은 찾아볼수 없으며 이것은 오직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부국강병의 거대한 업적입니다.

인민군장병들!

70년전의 장엄했던 열병광장을 보무당당히 떠난 조선인민군은 조국과 인민

을 지키는 치렬한 격전장들마다에 승리의 기발을 꽂으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세계적인 강군으로 자라난 우리 군대는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전란의 참화를 막아내는 평화수호의 역센 기둥이며 사회주의최후승리를 향한 우리 인민의 대진군을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척후대입니다.

지금 우리 인민은 백두의 넘과 기상으로 분투하는 용감무쌍한 인민의 군대를 커다란 자랑으로 여기고있으며 나날이 강대해지는 우리 군대의 전투적위력에서 새힘과 용기를 얻고있습니다.

인민군대는 자기의 더운 피와 땀, 결사의 헌신으로 인민의 진정어린 사랑과 신뢰를 쟁취하였으며 인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원호속에 인민과 일심일체를 이루고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의 전구들에서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습니다.

이렇듯 위풍당당하고 위력막강한 혁명군대, 인민의 군대를 가진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자랑이며 우리 인민의 크나큰 행운입니다.

나는 당신들과 같이 용감한 혁명군대를 총지휘하는 사령관의 중임을 맡고있는것을 무상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 전체 인민을 대표하여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일흔돐을 맞이한 전군의 장병들을 다시한번 열렬히 축하하며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열병부대 전투원들과 전체 인민군장병들!

당신들에 대한 당과 조국의 기대가 크고 인민들의 사랑이 극진할수록 인민군대는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답게 성실한 복무와 헌신적투쟁으로써 조국과 인민을 보위함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인민군대는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지위에 상응한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다지고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을 무력으로 굳건히 담보해나가야 합니다.

현시기 인민군대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은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이 밝힌 군력강화의 전략적로선과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여 혁명군대로서의 완벽한 전투력을 갖추는것입니다.

인민군대는 조선로동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합니다.

조선인민군은 우리 당의 품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당의 군대이며 인민군대의 강대성의 원천은 당의 혁명사상과 령도에 있습니다.

인민군대는 조선로동당에 운명의 피출을 잇고 당중앙위원회를 무장으로 옹위하는 제일결사대, 제일근위대가 되어야 합니다.

(2면으로 계속)

조선인민군 창건 70돐 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축하연설

(1면에서 계속)

전군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당의 명령지시하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군풍을 확립하며 모든 군사사업을 당의 로선과 정책에 립각하여 조직진행해나가야 합니다.

정치사상강군화, 도덕강군화를 쌓기등으로 틀어쥐고 전군을 항일의 7련대, 전화의 근위부대와 같은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는 실전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혁명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퍼올려야 합니다.

훈련이자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 길이며 훈련에 대한 요구성을 최대로 높이는 여기에 강군육성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당의 군사전략전술사상과 주체전법, 현대전의 요구와 양상에 맞게 훈련내용과 형식, 방법을 부단히 혁신하며 실전환경에 접근된 실용적훈련의 포성을 단 하루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선반도주

변에서 부산을 피우고있는 현정세하에서 인민군대는 고도의 격동상태를 유지하고 싸움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야 합니다.

하여 침략자들이 신성한 우리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0.001mm도 침해하거나 희롱하려들지 못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군종, 병종, 전문병부대들에서는 자기 손에 틀어쥐고 무장장비들에 정통하고 전문수준을 높이기 위한 훈련을 다그쳐 임의의 작전공간에서도 고도기술전을 치를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를 모든 면에서 우수한 군대로 육성하는것을 중요한 전략적과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야 합니다.

인민군대는 칼날같은 군기를 세우고 정규화적면모를 더욱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병사로부터 장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군인들이 제정된 규정과 교범을 잘 알고 그대로 생활하는것을 습벽화하여 부

대, 구분대, 군인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언제나 정규화적면모가 풍기게 하여야 합니다.

전군의 모든 지휘관, 병사들은 인민군대가 인민을 떠나서는 한시도 존재할수 없음을 항상 명심하고 인민을 무한히 존중하고 사랑하며 인민을 위함이라면 사신도 헤치는 혁명군대의 훌륭한 품모를 계속 견지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는 인민을 위한 일에서 큰일 작은 일을 가리지 말아야 하며 더없이 성실한 자세에서 진정을 바쳐나가는것을 혁명적군풍으로 여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는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애국적인 구호, 혁명적구호를 더 높이 추켜들고 불가능을 모르는 투지와 창조본태로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는 전투장들마다에서 무비의 영웅주의를 발휘하며 우리 조국의 면모를 더욱 아름답게 일신시켜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계속 앞장서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동지들!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계속되는 한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강력한 보검으로서의 인민군대의 사명은 절대로 변할수 없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혁명의 총대를 어깨에 틀어쥐고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주체혁명위업을 무장으로 용위하여온 조선인민군이 앞으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금성철벽으로 보위하며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는 억센 힘을 백배해나가리라하는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조선로동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한 조선인민군이 있는 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끝없이 강대하고 통성변명할것입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

당신들의 앞에는 언제나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기가 휘날리며 당신들을 무한히 고무하고 새로운 투쟁과 승리로 인도할것입니다.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용감히 싸워나갑시다!

조선인민군 창건 70돐 경축 열병식 성대히 거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참석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창건 70돐 경축 열병식이 2월 8일 평양에서 성대히 거행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태양상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상이 광장정면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장장 70성상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혁명의 총대로 어깨에 받들어 백전백승만을 떨쳐온 영웅적조선인민군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뢰심이 온 광장에 굽이치는 가운데 위풍당당한 혁명군대의 정규화적면모를 보여주며 열병총대들이 보무당당히 입장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광장에 도착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맞이하는 조선인민군 군종명예위병대의 영접의식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조선인민군 군종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군종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광장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전체 열병대원들은 주체조선의 천만년 미래를 담보하는 최강의 힘을 마련해주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과 《김정은》, 《결사옹위》 등의 합성을 더쳐올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열병의 환호를 울리는 열병식참가자들과 군중들에게 손저어 따듯이 답례하시였다.

조선인민군 군종명예위병대와 종합군악대가 특색있는 대형변화로 승리와 영광의 상징인 원수벌을 형상하고 《70》, 《당군》이라는 수자와 글발을 새기며 시작례식을 진행하였다.

애국가와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의 노래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와 조선로동당기가 게양되였다.

열병지휘관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상에게 열병부대가 조선인민군 창건 70돐 경축 열병식준비검열을 받기 위하여 정렬하였다는것을 보고하였다.

인민무력상이 열병부대를 사열하면서 2.8절을 축하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공화국 인민무력상이 조선인민군 창건 70돐 경축 열병식을 시작하겠다는것을 보고 드리였다.

열병시작을 알리는 신호나팔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지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가운데 21발의 레포가 발사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축하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연설을 끝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우리 혁명무력강화의 휘황한 진로를 밝혀주시고 우리 조국과 인민을 가장 존엄높은 강대한 나라, 위대한 인민으로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다함없는 경의와 뜨거운 인사를 드리였다.

《수령님과 장군님은 함께 계시네》의 노래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속에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태양상을 모신 초상기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상을 모신 초상기가 조선인민군 장령, 군관들의 호위를 받으며 광장에 들어섰다.

조선인민군 군종명예위병대와 전체 열병대원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초상기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초상기를 우러러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다.

열병행진이 개시되였다.

《조국보위의 노래》 주악이 울려 퍼지는 광장으로 정규무력건설시기 상징총대들이 열병대오의 앞장에서 발걸음드높이 나아갔다.

이어 조선인민군 군종, 군단급단위, 병종, 전문병, 군의군무병종대들의 열병행진이 시작되였다.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자》, 《김일성대원수 만만세》, 《장군님은 승리의 기치》의 주악이 울려 퍼지는 속에 당중앙결사옹위의 제일친위대, 제일결사대의 궁지와 영예를 떨치며 조선인민군 제1, 2, 5군단총대들이 기세충천하여 광장으로 들어섰다.

(2면으로 계속)



조선인민군창건 70돐경축 열병식 성대히 거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참석하시였다



(2면에서 계속)

당중앙위원회 프락의 문전보초병, 조국의 최전방을 지켜선 전초병의 영예를 안고 지축을 울리며 나아가는 열병대오 마다에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해온 성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이어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무적의 총대로 굳건히 수호해나가는 혁명무력의 전투적기백이 솟아올랐다.

조선인민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 특수작전군종대와 조국의 서남 전선을 지켜선 제4군단종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종대들이 광장을 도도히 행진해갔다.

수령보위, 조국보위, 인민보위의 빛나는 위훈을 아로새긴 자랑높은 군기들을 앞세우고 지축을 울리며 나아가는 열병대원들의 가슴가슴은 혁명의 붉은 총창을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당의 위업을 맨 앞장에서 충직하게 받드는 혁명적당군의 위용을 힘있게 떨쳐나갈 불같은 열의로 세차게 맥동쳤다.

반제혁명전쟁의 풍부한 경험과 백전백승의 자랑찬 전통, 그 어떤 전쟁환경에도

대처할수 있는 실전능력을 갖춘 우리 군대를 당할자 이 세상에 없음을 과시하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종대 등 조선인민군 련합부대종대들과 경찰병, 도하공병, 통신병, 전파탐지병, 군의근무병종대들이 용기백배하여 질풍쳐나갔다.

일당백정예부대의 위풍을 떨치며 주석 단앞을 지나는 인민군장병들은 영광의 단상에 높이 서게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러 《만세!》의 함성을 목청껏 터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는 안팎으로 멋있는 최정예혁명강군의 정규화적면모를 시위하며 나아가는 열병종대들에 손을 높이 드시여 뜨거운 답례를 보내시였다.

조국의 하늘을 믿음직하게 지켜가는 우리의 전투기들이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승리와 영광의 력사를 상징하는 《70》이라는 수자대형을 이루고 경축의 축포를 터치며 광장상공을 지나갔다.

《땅크병의 노래》 군악이 진감하는 속에 최강의 혁명군대의 불패의 군력을 시위하며 기계화종대들의 장엄한 철의 흐름

이 시작되였다.

땅크, 장갑차종대, 자행포 및 방사포종대들이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 최고사령관기를 휘날리며 광장에 들어섰다.

정연하게 서렬을 짓고 열병식장을 누벼가는 무쇠철마들과 각종 구경의 자행포, 방사포들이 강철포신들을 추켜들고 무적강군의 위용을 과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사력의 상징인 전략군부대행진이 시작되였다.

누리에 빛나는 우리의 존엄, 세계적인 전략국가로 우뚝 솟아오른 우리 조국의 위용을 과시하며 전략군부대들의 용용한 흐름이 열병광장을 힘차게 누벼나갔다.

강철의 담력과 배짱, 불면불휴의 애국 헌신으로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위하여 위대한 대승리들을 련이어 안아오시고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워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열병광장에 뜨겁게 굽이쳤다.

보면 볼수록 무궁무진한 우리의 힘에 대한 자긍심으로 가슴부풀게 하고 필승

의 신심과 용기를 백배해주는 무적의 대오, 화성포병들이 경축의 광장을 위풍당당히 지나갔다.

광장바닥에는 무적필승의 강군인 인민군대와 함께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고야말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백이 넘치는 《경축 2.8》, 《일심단결》, 《결사옹위》 등의 글발들과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가 련이어 펼쳐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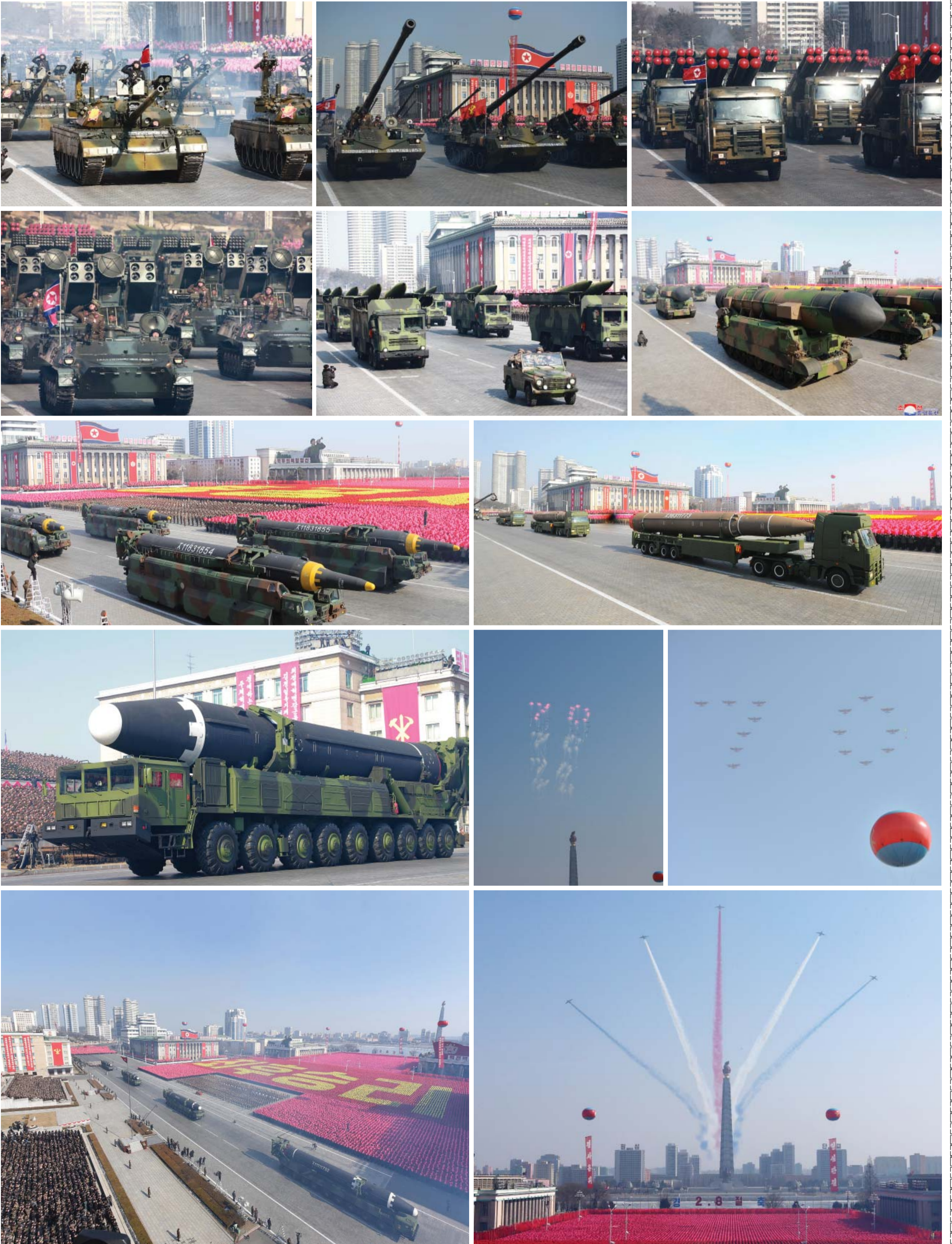
행진군악대가 《승리》라는 글발을 새기며 씩씩하게 가는 속에 광장상공에 우리의 붉은 매들이 오색부채살모양의 비행운을 새기며 열병식마감을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열병식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뒤흔들었으며 경축의 축포가 터져오르고 고무풍선들이 날아올랐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는 주석단로대에 나오시여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본사기자

조선인민군창건 70돐경축 열병식 성대히 거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참석하시였다



민족단합의 넓은 품에 안아주시어 (3)

애국지사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사랑

씨앗이 싹트고 자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자면 해빛이 있어야 한다. 나라의 독립을 위한 애국의 마음을 인생의 씨앗처럼 가슴에 간직했으나 참되게 꽃피우지 못하고 헤매이던 우천 조완구선생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따사로운 사랑의 빛받이 있어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인생을 참답게 빛내일수 있었다.

1881년에 봉건판교가문에서 태어나 성장한 그는 21살 때 법학전수학교를 졸업하고 고종황제의 《승훈부내부주사》의 판직에 올랐다. 그는 1905년 일제의 《을사5조약》 날조행위를 반대하여 반일독립운동에 나서게 되었다. 가슴에 품은 애국의 씨앗을 한송이 꽃으로 피우려 하는 열서를 안해에게 남긴 선생은 애국계몽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각종 계몽강연에 연사로 나서서 한편 일본경찰의 눈을 피해가며 격문을 뿌리는데 앞장섰다. 그는 집까지 팔아 자금을 융통하여 운동자금이나 친우들의 피신자금으로 선사하기도 했다.

이국에서 《상해림시정부》 수립에도 관여하면서 31년간에 걸친 망명살이를 끝내고 남조선으로 돌아올 때 선생은 《림시정부》의 요인이었으나

개인사적의 명목으로나 들어올수 있다는 미군정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였다.

자주독립을 바라던 선생의 애국의 씨앗은 싹들수 없었다. 남조선에서는 미군정이 판을 치고 애국배족세력은 미국을 등에 업고 《단선단정》을 꿈꾸며 정치론쟁에만 열을 올리고있었다.

미국에 접차 환멸을 느낀 선생은 김구, 김규식선생을 비롯한 인사들과 함께 공동성명을 내어 《단선》에 참가하지 않는다는것, 통일독립전에 여성을 바친다는 애국의 뜻을 표하였다.

참다운 애국의 길을 찾아 방황하던 조완구선생을 비롯한 인사들에게 통일독립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해빛이 비쳐들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남북련석회의를 소집할때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시고 남조선의 각당, 각파, 각계층 인사들에게 초청장을 보내도록 해주신것이다.

선생은 1948년 4월 김구, 김규식, 홍명희, 조소앙 등 여러

인사들과 함께 《통일독립운동자협의회》를 결성하는데 앞장섰으며 그후 《한국독립당》 대표들과 민족자주련맹 대표들, 우익단체 대표들과 함께 북행길에 올랐다.

위대한 주석님께서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한 그를 김구, 홍명희선생과 함께 주석단성원으로 선출하시였다.

한없는 감격과 흥분에 휩싸인 그의 가슴을 더욱 뜨겁게 해준것은 확고한 민족자주정신과 숭고한 애국애족의 로선이 담겨진 위대한 주석님의 보고였다.

그이께서는 보고에서 남조선에서 실시하려는 《단독선거》는 우리 조국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으며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로, 군사기지로 만드는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시면서 조국이 분렬의 위기에 처한 이 엄중한 때에 모두가 단결하여 통일적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며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한 거족적투쟁을 벌려야 한다는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위대한 태양의 빛받아래 조

완구선생의 가슴에서 애국의 씨앗은 마침내 싹트게 되었다. 선생은 주석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통일독립을 위한 애국투쟁에 앞장섰으며 그후 남조선의 여러 정객들과 함께 공화국으로 의거하였다.

준엄한 전쟁시기였지만 주석님께서 조완구선생이 미군의 폭격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시였고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관심하시였다.

그이의 사랑은 선생에게 있어서 애국의 삶을 꽃피워나가도록 하는 자양분이였다. 그는 로년기의 몸이었지만 주석님의 위인상을 담은 글을 집필하는 한편 민족문화유산을 귀중히 여기시는 그이의 뜻을 받들어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역사문헌들을 번역출판하기 위한 준비사업에도 전심전력하였다.

선생의 가슴속에 간직되어 있던 애국의 씨앗은 태양의 빛과 열을 받아 싹트고 줄기를 왕성하게 뻗어갔다.

위대한 주석님께서 조완

구선생이 병환으로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에게 《애국지사》라는 고귀한 칭호를 안겨

주시고 영생하는 삶을 누리도록 해주시였다.

은 거례를 통일애국의 길에 내세워주고 이끌어주신 위대한 주석님의 대해같은 덕망에 의해 조완구선생의 생은 통일애국의 한생으로 빛나게 되었다.

본사기자 류 현 철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

원격강의실에 들리시여

주제 102(2013)년 6월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현대적으로 꾸려진 평양기초식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원격강의실에도 들리시였다.

원격강의실에서는 일을 끝낸 공장노동자들이 컴퓨터를 통하여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하는 강의를 받고 잘 모르는 문제들은 음성과 화상을 통하여 물어 보고 시험도 치면서 교육의 전 과정을 마치게 되어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형

TV화면에 현시된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원격교육체계 《리상》 홈페이지를 보시며 매 학생들이 강의를 받은 정형과 강의 리해정형, 시험응시정형을 비롯

교원들도 생각 못한 문제

몇해전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위성과과학자주력지구를 돌아보시면서 위성초급중학교도 찾으시였다.

북도에 놓여있는 옷걸이가 달린 의자에도 다가가시여 손

룩한 학생들의 학습정형을 순위를 갈라 소개한다는데 교육관리프로그램을 정말 잘 만들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원격강의실에서 원격교육을 받는것을 전민학습체계라고 하여야 할것 같다고 하시였다.

수 의자의 폭과 길이를 재어 보시고 옷걸이의 개수도 가능해보시고 그이께서는 옷걸이가 달린 걸상의 길이가 짧다고 하시며 모든 학생들이 그것을 리용할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어느 한 교실에 들

어서신 그이께서는 책상을 유심히 살펴보시다가 책상우에 있던 책이나 원주필이 조금만 다쳐도 떨어질것 같다고 하시면서 책상우면에 턱을 지어주든가 아니면 홈을 파주어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그이께서는 지금 북도바닥에 연마화강석을 깔았는데 아이들이 겨울에 눈을 밟고 들어오다가 넘어질수 있으니 학교북도바닥에는 그에 맞는 바닥재를 개발하여 깔아주어야 한다고 세세히 가르쳐주시였다.

본사기자

령장의 담력과 지략 (7) 행성을 뒤흔든 조선의 선언

미국은 조선정전후 남조선에 대한 핵무기배비를 정책화하고 1958년부터 1990년초까지 무려 1 720여개나 되는 각종 전술핵무기를 남조선에 끌어들이었다.

공화국은 남조선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철수시키며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할 목적으로부터 1985년 12월 핵무기전과방지요약에 가입하였다. 그후 공화국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와 핵담보협정을 체결하고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였다. 여러차례에 걸쳐 진행된 핵사찰과정에 공화국의 핵시설이 핵무기개발과는 인연이 없으며 평화적목적에만 리용되고있다는것이 명백히 확증되였다.

그러나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일부 계층들을 사찰하여 공화국의 일반군사대상들에 대한 《특별사찰》을 강요하였고 1993년 1월 이미 중지했던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의 재개를 공포하였으며 20여만의 침략무력과 방대한 핵타

격수단들을 동원하고 지어 핵무기사용시의 지휘체계까지 발동하면서 군사적위협소동을 벌리였다.

이것으로 하여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은 또다시 엄중한 위협을 받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때 조선에서는 핵폭탄같은 선언이 울려 퍼지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1993년 3월 8일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적대세력들의 《팀 스피리트 93》 합동군사연습이 실동단계에 들어간때 대처하여 조선인민군의 일부 타격수단들이 전개되고 기동훈련이 진행되였다. 150만여명의 청년들이 인민군대입대를, 수많은 각계층 인민들이 복대를 탄원해나섰다.

이러한 속에 1993년 3월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무기전과방지요약에서 탈퇴한다는 정부성명이 행성에 메아리쳐갔다.

준전시상태의 선포와 핵무

기전과방지요약에서의 탈퇴조치는 언제나 맞받아나가는 전술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변함없는 원칙적립장, 무비의 담력과 배짱, 의지의 발현이었으며 적대세력들에 대한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조치였다.

당시 오스트리아의 한 방송은 조선이 핵무기전과방지요약에서 탈퇴한다는 성명이 발표된 《이날은 지구가 깨어지기 시작한 날》이라고 평하였으며 세계는 《지구상의 핵폭탄을 다 터쳐도 북조선의 이번 성명보다 위력하지 못하다》, 《조선의 결정은 미행정부를 쇼크상태에 빠지게 하였다》고 하였다.

형세는 역전되었으며 승리는 확정적이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지략, 하늘이 무너진대도 끄떡하지 않는 담력과 배짱 앞에 적대세력들의 어떤 술수도 통하지 않았다.

미국이 벌린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은 기본단계 실동훈련을 하고있었으며 그것은 북

침의 위험한 불장난이었다. 바로 이러한 때인 3월 24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준전시상태를 해제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신 소식이 전해졌다.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합동전쟁연습의 포성이 계속 울리고있는 때에 준전시상태를 주동적으로 해제한것은 국제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강자만이 여유작작할수 있다. 준전시상태의 조기해제로 호전세력들은 또 한번 패자의 가련한 몰골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게 되었다.

당시 미국무성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담당 차관보는 《북조선이 이처럼 강력한 태도로 반격해나오리라는것을 예측하지 못했다. 북조선은 단결력이 있어서나 군사력에 있어서 특수한 나라이기때문에 미국에 어떠한 타격을 가해줄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비명을 질렀다. 《워싱턴 타임스》는 미국이 북조선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 화를 입을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본사기자 주 일 북

교육은 인재를 키우는 일이다. 교육이자 인재이고 인재의 역할에 나라와 민족의 존재와 발전이 중요하게 좌우된다. 예로부터 한해일을 궁냥하러면 농사를 지어야 하고 10년을 계획하려면 나무를 심어야 하고 100년을 내다보려면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하였다. 인재는 나라와 민족의 첫째가

는 재보이다. 인재가 많으면 작은 나라도 강한 국력을 가지고 흥할수 있지

만 인재가 없으면 광대한 령토와 풍부한 자원으로 빛을 낼수 없으며 국가발전과 사회진보를 이룩할수 없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교육중시, 인재중시로선을 제시하고 후대교육과 인재강국건설에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고계신다.

세해전 정월초하루,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를 하신 그길로 평양육아원을 찾으시였다. 점심시간이었는데 원아들이 밥먹는것부터 보자고 하시며 식당에도 가보시고 보육실과 잠방, 물놀이장도 돌아보신 그이께서 지능놀이실에 이르시였을 때였다. 그곳에서는 원아들이 수자맞추기와 조각그림 맞추기를 하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원아들의 모양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원아들이 모두 맞추기를 잘한다고, 모두 푼다 할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일군들에게 어린이지능교육도서를 많이 만들어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에는 물론 전국의 모든 육아원과 애육원에 보내주도록 할데 대하여 이르시였다. 그러시면서 어린이지능교육도서들을 잘 만들도록 할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세 계적으로 이름난 어린이지능교육도서들에 대하여 실례도

지시였다. 육아원을 다 돌아보시고 이 애육원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지능놀이실에 들리시여 지능교육용그림책들이 있는가 알아보시였다. 애육원의 한 일군이 어린이지능교육용그림책들이 많다고 하며 책꽂이에서 그림책을 뽑아 그이께 올리였다. 책을 받아드시고 주의깊게 보신 그이께서는 다른 책꽂이에서 그림책을 고르시여 한장한 장 번져보시였다. 그러시고는 《우리 말을 배워요》, 《생각해보자요》라는 도서들은 어린이들의 지능을 개발시키는데 좋은 도서들이라고 하시며 그런 책들을 더 많이 만들어 전국의 육아원과 애육원에 보내주도록 할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어느 나라에서나 교양은 불행과 설움의 대명사이다. 그들이 잠시나마 배불리 먹고 쓰듯이 지낼수 있다면 그것은 다행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공화국에서 원아들은 국가의 관심과 시책에 의하여 부모없는 설움이나 자그마한 불편을 모르고 자라고있다.

원아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깊은 관심과 포괄적이며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알아보시였다. 애육원의 한 일군이 어린이지능교육용그림책들이 많다고 하며 책꽂이에서 그림책을 뽑아 그이께 올리였다. 책을 받아드시고 주의깊게 보신 그이께서는 다른 책꽂이에서 그림책을 고르시여 한장한 장 번져보시였다. 그러시고는 《우리 말을 배워요》, 《생각해보자요》라는 도서들은 어린이들의 지능을 개발시키는데 좋은 도서들이라고 하시며 그런 책들을 더 많이 만들어 전국의 육아원과 애육원에 보내주도록 할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어느 나라에서나 교양은 불행과 설움의 대명사이다. 그들이 잠시나마 배불리 먹고 쓰듯이 지낼수 있다면 그것은 다행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공화국에서 원아들은 국가의 관심과 시책에 의하여 부모없는 설움이나 자그마한 불편을 모르고 자라고있다.

지능교육의 갈피에도

원아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깊은 관심과 포괄적이며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알아보시였다. 애육원의 한 일군이 어린이지능교육용그림책들이 많다고 하며 책꽂이에서 그림책을 뽑아 그이께 올리였다. 책을 받아드시고 주의깊게 보신 그이께서는 다른 책꽂이에서 그림책을 고르시여 한장한 장 번져보시였다. 그러시고는 《우리 말을 배워요》, 《생각해보자요》라는 도서들은 어린이들의 지능을 개발시키는데 좋은 도서들이라고 하시며 그런 책들을 더 많이 만들어 전국의 육아원과 애육원에 보내주도록 할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어느 나라에서나 교양은 불행과 설움의 대명사이다. 그들이 잠시나마 배불리 먹고 쓰듯이 지낼수 있다면 그것은 다행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공화국에서 원아들은 국가의 관심과 시책에 의하여 부모없는 설움이나 자그마한 불편을 모르고 자라고있다.

원아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깊은 관심과 포괄적이며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알아보시였다. 애육원의 한 일군이 어린이지능교육용그림책들이 많다고 하며 책꽂이에서 그림책을 뽑아 그이께 올리였다. 책을 받아드시고 주의깊게 보신 그이께서는 다른 책꽂이에서 그림책을 고르시여 한장한 장 번져보시였다. 그러시고는 《우리 말을 배워요》, 《생각해보자요》라는 도서들은 어린이들의 지능을 개발시키는데 좋은 도서들이라고 하시며 그런 책들을 더 많이 만들어 전국의 육아원과 애육원에 보내주도록 할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서 충 혁

시류음

위대한 령장을 모시여 강군의 력사 빛난다

아, 2월 8일!

김 윤 식

2월 8일!
 이날은 반만년민족사가
 진정한 자기의 군대를 맞이한 날
 새 조선의 정규무력을 력사앞에 정렬시킨
 김일성장군 우리러
 민족이 터친 환호성 하늘땅을 뒤흔든 날

얼마나 불려보고싶었던가
 우리 군대—
 얼마나 원하고 바랬던가
 우리 군대—
 피절은 겨레의 숙망이 이루어진 날이여

나라없는 민족이
 군대가 없어 당해야만 했던
 아, 그 설움 그 울분보다
 더한 아픔 어디에 있고
 그보다 더한 수치 어디 또 있었더냐

3.1의 그날 총을 든 침략자앞에
 항거의 맨가슴은 피를 뿜어야 했다
 강토도 말도 굴도 강그리 빼앗기고
 왜놈의 총칼에 무참히 란도질당한
 아, 망국의 사무친 그 원한

겨레가 짓밟혀 산 치욕의 력사
 다시는 다시는 이 땅에 흐르지 않게 하시려
 강철의 군대를 창건하신 수령님
 백두산장군의 거룩한 안광이
 열병광장에 빛발친 2월 8일

정녕 이날은
 어제날 노예로 살던 이 나라 아들딸들이
 백두령장의 슬하에 안겨
 조선의 첫 병사로 태어난 날
 우리 민족이
 자기를 지킬 강대한 힘을 틀어친 날

2월 8일 이날이 있어
 세기와 년대를 넘어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굳건히 수호되고
 그 어떤 침략의 불구름도
 내 조국의 푸른 하늘 흐릴수 없었노라

아, 2월 8일
 강철의 령장 수령님 우러러
 총대에 민족이 운명을 맡긴 날이여
 너는 조선의 천만년미래 담보해주며
 내 조국의 력사에 길이 빛나리라

총대는 무엇을 말하는가

김 송 립

뜻깊은 건군절 이 아침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
 내 조용히 문열고 들어서니
 숭엄하게 안겨오는 장군님 모습
 그이의 손에 역사에 쥐여져있는
 한자루의 기관총 기관총!

조국을 위해 인민을 위해
 한생 벗으실수 없었던 야전복이라면
 한생 놓으실수 없었던 그것은 총대
 누가 총은 말이 없다 했는가
 위대한 그이 한생 다 말해주는 총대여

장군님 총대로 쓰신 불멸의 선군령도사
 갈피갈피를 번져 생각을 깊어지노라
 문노니, 총이여 사느냐 죽느냐
 것처럼 간고했던 고난의 그 나날
 정녕 너는 그이께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사랑하는 인민의 운명이였다
 소중한 이 땅의 모든것
 귀여운 아이들의 웃음과 노래였다
 잃고서는 못살 존엄이였고
 우리모두 삶을 맡긴 조국이였다

오성산이며 철령, 초도여 말하라
 사생결단의 의지로 헤쳐가신
 조국수호의 그 눈물겨운 날과 달들을
 이 땅에 솟아난 총검의 숲이여 말하라
 불패의 군력 다져주신 불멸의 그 업적을

열과 정을 부어 온넛을 다해
 무적의 강군 키우신 그이의 천만헌신
 총대로 열어가신 승리의 로정우에
 인민의 복된 삶이 꽃처럼 웃노라
 내 조국은 불패의 강국으로 빛을 뿌리노라

아, 백승의 령장 김정일장군님
 역사에 틀어잡고계시는 총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장군님 선군업적 길이 전하며
 우리의 가슴에 새겨주고있거니

잡으면 강자가 되고
 놓으면 노예가 되는 총대의 진리
 사람들이여, 놓지 말라
 이 행성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더 굳게 더 역사에 잡으라 총대를
 명줄처럼 명줄처럼...

승리의 열병광장

김 영 일

백승만을 떨쳐온
 무적강군의 위용이런가
 2.8절 열병광장에 노도치는
 자랑스런 강철의 대오
 지축을 울리는 드높은 발걸음소리

70년전 청년장군 수령님 우리러

건군의 첫 기슭을 떠나온 열병대오
 그날의 2월에서 오늘의 2월까지
 전승의 광장만을 누벼온
 오, 궁지높은 불패강군의 력사여

조국의 최전방 지켜선 전초병들이
 영웅한 바다의 용사 하늘의 초병들이

지축을 울리며 나아간다
 하늘땅 진감하는 무쇠철마들
 우리의 《화성》포가 힘차게 전진해간다

신심 백배해지노라
 질풍쳐 나아가는 우리의 인민군대
 침략의 불구름 쳐갈기며 승리해온
 영웅적 우리의 조선인민군
 위훈의 대오여 무적의 대오여

패전의 고배를 들이키며
 쓸쓸히 걸어간 수치의 광장
 살길 찾아 투항의 두손을 쳐들고
 뿔뿔이 흩어져가던 비극의 광장

오늘도 날린다 근위부대기발

김 태 통

전화의 50년대 불구름을 뚫고온
 자랑스런 근위부대 군기는 아닌가
 강철의 땅크사단이 높이 추켜들었다
 열병대오의 힘찬 발구름소리 드높은
 2월의 열병광장에 힘차게 나뭇긴다

아직도 채 가지지 못한
 그날의 포연 스배여있는듯
 불비 쏟아지는 처절한 격전장에서
 위훈을 불러 나뭇긴 기발
 저 기폭이 불러주는 숭엄한 생각이여

나라없던 그 세월
 노예의 설움에 찌들던 인생들
 너를 보며 처음으로 자존의 머리를 들고
 운명의 수난자들 너의 자락밑에서
 미제를 놀러디던 영웅이 되었나니

떠나온 집이였고 두고온 땅이였다
 작별의 손 저어주던
 사랑하는 애인의 모습은 아니었던가

우리에게 위대한 령장이 계신다

김 태 통

세계는 묻고있다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며 우뚝대는
 오만한 미제의 역줄을 거머쥐고
 무혈승전의 기적을 창조하는 조선
 그 힘은 어디서 오는것인가

조선의 2월은 말한다
 백승의 령장 김정은원수님
 그이는 조선의 힘
 민족의 존엄과 영광 모든 승리의 상징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군사강국으로
 이 조선을 세상에 우뚝 세우신 령장
 5천년력사에 피땀한 숙원을 풀어
 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이루신
 그이는 절세의 애국자

저 하늘에 그이 안광 비껴가면
 제국주의 뽀구름은 산산이 부서지더라
 그이 분노의 음성 퇴성치면
 적진은 공포에 질려 움츠러들더라
 김정은원수—그이는 천하의 제일강자

세상을 둘러보노라

세계전쟁사의 갈피에 있었어라

허나 이 땅의 광장은
 70년 건군사에 승리만을 새겨온
 전승의 광장 영웅의 광장
 불패의 조선인민군은 이 광장에
 승리의 발걸음소리만 울려가리라

아, 2월의 열병광장
 여기서 우리는 보노라
 원수님 모시여 영원할 조선의 승리
 2월의 광장을 지나 가닿을
 최후승리의 열병광장을

배움의 글소리 울리던 학교
 동음소리 드높던 공장의 일터
 이 나라 인민의 운명파도 같았던 기발

싸움터에 날리면 죽음도 이겨내게 하고
 무서운 징벌의 나라를 주어
 기발이여, 너는 용맹의 역센 자락이였다
 그 어떤 원수도 단숨에 짓뭇개버리는
 기발이여, 너는 강철의 철갑이였다

오늘도 근위부대 그 낮은 푸르게 살아
 무적강군 추켜든 총창우에 번뜩이노니
 전화의 영웅들이 물려준 기발
 반미대결전 최후승리의 그날까지
 그 영웅의 후손들이 끝까지 날려갈 기발

2월은 말한다
 장엄한 열병대오는 소리높이 웨친다
 근위부대 군기를 높이 추켜들라
 이 기발 날리는 곳에
 항복의 흰기 들지 않을 원수가 없다
 영원히 떨쳐갈 조선의 승리가 있다

재부도 풍요한 자원으로
 결코 운명을 지켜주는 수호신 아니었음을
 총을 쏜 군대가 있다고
 강토에 평화가 저절로 깃들지 않았음을

수령님 따라 전승의 광장을 걸었고
 장군님 따라 피눈물의 고난 헤쳐넘으며
 우리 심장에 간직한 진리
 그것은 위대한 령장을 모시야
 나라의 자주권, 인민의 존엄
 평화도 승리도 있다는것이였나니

행복이여라 영광이여라
 승리를 승리로 이어가시는
 또 한분의 령장을 모신 인민의 궁지여
 세상천하가 열백번 깨져나간다해도
 우린 원수님만을 믿는다
 오직 그이만을 따르고 받든다

오, 2월의 하늘가에 터져오르는
 천만군민의 환호성 환호성이여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신
 백두의 천출명장이 우리에게 계신다
 그이를 모셔 조선은 백전백승하리라



국제무대에서 강권과 전횡을 일삼으며 오만하게 높아대는 미국,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이 아메리카제국도 감히 어찌 못하는 불패의 위력을 지닌 우리 공화국이 오늘날

조선이야말로 진짜 초대국이다

세계 언론들의 평

가 있다고 하면서 나이제리아에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현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게재하였다.

경제력이나 군사력의 《강대함》을 자랑하는 미국에 비해 볼 때 조선은 령토나 인구수에 있어서 미국과는 대비도 안되게 작은 나라이다.

하나 조선은 출중한 지략과 담력을 지니신 김정은각하의 령도를 받고있으며 자기 위업에 충실한 군대와 인민을 가지고있다.

수십년간 지속된 미국의 압박은 조선을 더욱 강한 나라로 만들었다.

로씨야의 인터넷홈페이지

국 조선을 축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

네 팔인터네트잡지 《네팔 투데이》는 이렇게 전하였다.

세계는 미국의 핵선제타격에 위압되어 부정의 전횡에 감히 맞서지 못하고있다.

핵을 가진 대국들도 미국에 눌리워 한갓 장기쪽으로 전략되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오직 조선만이 미국을 길들이며 정의를 수호해나가고있다.

미국은 저들이 《핵선제타격》단추를 누르기 전에 먼저 미본토를 초토화시킬 조선의 단호한 기상과 막강한 전쟁억제력에 전전공공하여 눈치만 보고있다.

이런 일나통신은 조선은 주체의 핵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국제사회가 목격한바이지만 미국은 조선을 핵으로 끊임없이 위협해왔다.

조선인민은 자기자신을 지키기 위해 핵억제력을 갖추는 길을 택하게 되었다.

하지만 핵보유는 원한다고 하여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국제사회가 경탄하는것은 대국들의 전횡앞에서 타협을 모

르는 조선의 투철한 자주정신이다.

조선은 대국들의 위협과 공갈에 뒤걸음치거나 순종하지 않았다.

미국의 로골적인 핵선제공격 위협에 핵보유로 대답하였고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끊임없이 강화하였다.

조선의 수소탄은 세계제패를 노리는 령강들의 핵우세와 패권을 일격에 무력화시킴으로써 부정의로 가득찬 핵무기의력사에 종지부를 찍었다.

광범한 국제사회는 조선의 핵보유에 박수갈채를 보내고있다.

민주공공신문 《리 누벨 옵세르바토르》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천 출 위 인 이 신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중심으로 첩경같이 뭉친 조선의 일심단결은 미중유의 힘과 기적으로 조선이라는 국호를 떠올리고있다.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민족의 안전과 운명을 수호해나가는 령도자를 결사옹위하여 총독란이 되어 펼쳐나온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은 조선을 불패의 초대국으로 떠받드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이러한 결정구조는 그 어떤 핵탄으로도 깨지 못한다.

조선이야말로 세계의 초점을 모으는 진짜 초대국이다.

본사기자

미국이 풀지 못한 수수께끼,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력대 미국대통령들과 정치인들이 지난 수십년간 풀지 못한 수수께끼가 있다.

모든 국제문제들에 간참하면서 세계의 《재판관》이나 되는것처럼 《결론》하고 《결정》을 내리곤 하는 미국에 오래동안 풀지 못한 정치적수수께끼가 있다는것자체가 수수께끼이다.

그 수수께끼가 다름아닌 조미사이의 모순이다.

지나온 력사를 돌이켜볼 때 그 어느 미국대통령이나 《조선문제해결》을 위해 군사적위협을 동반한 강경과 채찍, 회유와 기만의 수법을 다 써보았지만 누구도 조선이라는 호두알을 깨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음 정권에 정치적미결건으로 넘겨주지 않으면 안되었다.》

조선과의 친선협회 칠레지부 인터넷홈페이지가 이렇게 전한것처럼 조선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있는 미국의 가공한 처지는 공정

한 세계여론의 조소와 비난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의연구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제2차 세계대전후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여 전쟁을 도발하였으며 오늘까지 적대시정책을 실시하면서 이 나라를 압박해왔다.

조선은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미국에 강경히 맞서 첨단급의 무장장비들을 갖춘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등장하였다.

힘으로 조선을 《징벌》하자니 저들의 멸망까지 각오해라 하고 그렇다고 손을 들고야 할지 모르겠다.》

《제2차 세계대전후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여 전쟁을 도발하였으며 오늘까지 적대시정책을 실시하면서 이 나라를 압박해왔다.

조선은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미국에 강경히 맞서 첨단급의 무장장비들을 갖춘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등장하였다.

힘으로 조선을 《징벌》하자니 저들의 멸망까지 각오해라 하고 그렇다고 손을 들고야 할지 모르겠다.》

미국이 안고있는 정치적수수께끼를 풀자면 조미력학구도를 구체적으로 투시해볼 필요

내가 북을 다녀온 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이런저런 질문을 하였다. 그 대부분은 북 녀사화에 대한 호기심에 찬것들인데 듣다보면 어찌구무없는 것들도 적지 않다. 서방세계가 《독재체제》, 《노예적삶》 등 북을 얼마나 《악마화》했으면 사람들의 북에 대한 인식이 이 지경인가 하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북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털어놓는 사람들을 보면 말해주곤 한다. 북을 방문하는 나날에 내가 직접 보고 체험한 사실들에 대해서, 인민들에게 만복을 안겨주시려 마음쓰시는 령도자의 사랑속에 기쁨과 량만에 넘쳐 살아가는 북녘사람들에 대해서...

지난해 여름 북을 찾았을 때였다. 한해전에 왔을 때보다도 몰라보게 달라진 평양의 모습은 나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한해사이 새로운 고층살림집 구획들이 많이 들어섰을 뿐아니라 도처에 꾸러진 공원, 유원지들마다에서 더욱 활기에 넘친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찾아볼수 있었다.

어느 일요일 우리 일행은 평양의 소문난 명승지인 모란봉에 올랐다. 산봉우리들의 모양이 금시 피어나는 모란꽃같다고 하여 모란봉이라 부르는데 이곳은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모란봉의 수려한 경치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오랜 력사유적인 울밀대로 오르는 데 흥취나는 출판을 빌려놓은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고 《반갑습니다.》, 《한바탕 같이 취합시다.》 하며 저마다 손을 내밀었다. 그들에게 이끌려 회색바탕에 꽃무늬를 새긴 목수건을 두른 한 녀인과 춤을 추었는데 가볍고 맵시있는 춤동작이 여간 보통이 아니었다. 《젊어서 무용을 하였는가요?》

《무슨 무용을 했겠나요. 하두 즐겨 추다보니 이젠 출가락이 절로 나옵니다.》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인게지요?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니 말입니다.》

《자주 모란봉에 올라 춤을 추고 노래도 부르답니다.》

《집이 가까운가요?》

《려명거리에서 살지요. 저기 보이는 고층아파트 39층에

우리 집이 있어요.》

《저런 주택에서 사신다니 자식들이 간부인게지요?》

북에 일떠서는 고급살림집들에서 《상류층》만 산다는 서방의 선전을 들어온 나였다. 그 물음에 녀인은 《우리 자식들은 다 노동자들이랍니다.》

말하는 평양326전선공장에서, 둘째는 구역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하지요. 나라에선 렬명거리의 새 집을 노동자가정인 우리에게 주었다오. 무상으로 말이요.》라고 말하는것이였다.

무상으로!

세계적인 군사강국, 초대국으로 무섭게 솟구쳐오른 조선

방글라데시신문 《데일리 나우로즈》는 지난해 9월 조선의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성공소식이 세계를 진감시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행성의 《절대병기》, 《황제폭탄》으로 일컫는 수소탄과

판이 러졌다.

그들과 즐겁게 한때를 보내고 대동강에 두둥실 떠있는듯한 룡라도에 들리니 거기에도 현대적인 유희오락시설들이 갖추어진 유원지가 꾸러져 있었다.

그중에서도 금시라도 물위로 솟구쳐오르는듯한 곰둥이를 형상한 건물이 인상깊게 안겨왔다. 최근 북을 다녀온 사람들속에서 룡라곰둥이관이 인기있더라는 말을 들어왔던지라 곰둥이재주를 볼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싶지 않아 그안에 들어

지 갖춘 조선은 세계적인 군사강국, 초대국으로 무섭게 솟구쳐올랐다.

세기를 이어오는 미국과의 핵대결전에서 조선은 이제 가질것은 다 가지고 얻을것은 다 얻었다.

세계의 렬학구도는 신흥초대

를 하지 않겠다고 도리머리질을 하는것이 아닌가. 그 모양이 우스워 입을 싸쥐었다. 그런데 능청스러운 곰둥이가 그렇게 생긴 처녀손님을 보는 물위로 뛰어올라 그의 불에 《뽀뽀》를 하는것이였다. 그 바람에 《와!—》하는 웃음소리가 관람석을 들뜨다놓았다....

곰둥이들의 기교를 보는것도 좋았지만 룡라물놀이장의 아찔한 미끄럼대에서 물갈기를 날리며 쓴살같이 내려쬐는 상쾌함이란 무엇에도 비길수 없었다.

《하하, 호호!》, 웃음속에 물놀이수조의 여기저기에서 튀겨오르는 물보라, 물에뛰어들기전수라도 된듯 아찔한 조약대우에서 멋진 동작으로 내리꽂히는 젊은이들, 은구슬 반짝이는 모래밭에서 햇빛쪼이기를 하는 사람들, 모래터배구장에서 청년들이 《와와!》 함성을 지르며 승부를 다투는 열띤 모습들도 눈길을 끌었다.

유희장에서 급강하탑에 몸을 싣고 하늘높이 날아오르니 룡라도가 눈아래 보이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유희한 웃음소리가 귀전을 채웠다.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흥에 겨

워 노래를 부르며 희망찬 래일을 구상하는 광경은 볼수록 흐뭇했다.

실로 북은 인민들의 기쁨 넘친 웃음소리로 가득차있었다.

과학자, 교육자들을 제일로 내세우는 제도하에서 미래과학자거리, 렬명거리, 연풍과학자휴양소들에서 삶을 누리고 휴양생활을 하는 과학자, 교육자들의 웃음소리 끝없고 온 나라에 일어번지는 체육열풍속에 일터와 마을 어디서나 량만에 넘친 웃음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웃음은 장자의 여유이다. 북부조국에서는 미국과 유엔안보리사회의 제재가 가해지는 속에서도 웃음소리는 더욱 커가고있었다. 무엇을 믿기에 웃음에 넘쳐있는것인가.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이었다.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솟구쳐올라 우리를 못살게 굴고 악한짓을 다해온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승리자의 존엄과 긍지가 강자의 웃음을 짓게 하고있었다. 경제강국, 과학기술강국, 문명강국건설을 다그쳐 사회주의강국으로 솟구쳐오를 그날이 멀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휘황한 래일에 대한 낙관을 넘쳐 더 크게 웃고있었다.

북녘사회에 넘쳐나는 웃음, 그것은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의 환하신 미소에 그대로 비껴있다고 해야 할것이다.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인민의 행복을 꽃피워주시려 로고를 바쳐가시는 그이의 안광에는 환하신 미소가 떠날줄 모른다. 세상을 밝히는 해빛같은 웃음, 거기에는 자기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고 승리에 대한 자신만만함이 있으며 인민에 대한 사랑이 넘쳐흐른다.

내가 만나본 북부조국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원수님만 믿고 따르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만복을 누리게 된다는것이다.

제일 피우기 힘든 꽃이 인민의 웃음꽃이라고 하였다.

인민을 내세우는 이 제도가 좋아서 웃고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이 정치가 제일이라며 사람마다 행복의 웃음꽃을 피우고있었다. 그것을 보면서 북녘사람들이야말로 지구상에 돌도 없는 웃음의 나라에서 사는, 자본주의백만장자들도 부러워할 웃음부자들과고 생각되었다.

재미동포 흥 경 미

웃음 많은 나라

많은것을 생각해하는 말이였다. 내가 살고있는 미국에만 해도 단칸짜리 집조차 마련할수 없어 세방살이와 로숙으로 하루하루를 고달프게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라에서 궁핍같은 새 집을 지어 평범한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주었다니 어찌 노래춤이 절로 나오지 않으랴.

북녘사람들은 인심도 후했다. 우리가 자리를 뜨려고 하자 점심시간인데 별다른것이 없어도 식사나 같이하자며 잡아 끌었다. 좋은 기쁨이 될것같아 자리를 함께 하니 딱이떠지짐, 김밥, 물고기 반찬이 보기만 해도 군침이 들었다. 한 로인이 찬그릇을 내밀며 내가 좋아한다고 머느리가 밥새 빛어 만든 만두요 하니까 저편 로인이 이긴 우리 딸이 싸준 오리고기볶음이고 또 이긴 자기네 인민반장이 만들어 보낸 순대라며 꺼내놓았다.

그러자 내곁에 앉았던 로인이 이긴 우리 내외가 전쟁로병이라고 자주 찾아오는 사람들이 들고온 잉어탕인데 어른네는 눈요기만 하고 해외에서 온 손님만 맛보라고 하는 통에 웃음

서니 음악에 맞추어 곰둥이들이 갖가지 재주를 펼쳐보이고 있었다. 동시공치기, 공안고서서 가기, 물우에 서서 뒤로가기, 큰 공 날리기... 본능적으로 그물을 무서워하는 곰둥이가 자그마한 꼴문으로 공을 물고들어가 쏘—하는 모습은 참으로 신기했다.

곰둥이들의 재주가 펼쳐진 다음 《이번에는 곰둥이가 마음에 드는 손님과 《뽀뽀》를 하겠습니까.》라는 조교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조교사의 손길에 이끌려 남자손님이 곰둥이가 있는 곳으로 가자 곰둥이는 그가 싫은지 《뽀뽀》

《하하, 호호!》, 웃음속에 물놀이수조의 여기저기에서 튀겨오르는 물보라, 물에뛰어들기전수라도 된듯 아찔한 조약대우에서 멋진 동작으로 내리꽂히는 젊은이들, 은구슬 반짝이는 모래밭에서 햇빛쪼이기를 하는 사람들, 모래터배구장에서 청년들이 《와와!》 함성을 지르며 승부를 다투는 열띤 모습들도 눈길을 끌었다.

유희장에서 급강하탑에 몸을 싣고 하늘높이 날아오르니 룡라도가 눈아래 보이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유희한 웃음소리가 귀전을 채웠다.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흥에 겨

워 노래를 부르며 희망찬 래일을 구상하는 광경은 볼수록 흐뭇했다.

실로 북은 인민들의 기쁨 넘친 웃음소리로 가득차있었다.

과학자, 교육자들을 제일로 내세우는 제도하에서 미래과학자거리, 렬명거리, 연풍과학자휴양소들에서 삶을 누리고 휴양생활을 하는 과학자, 교육자들의 웃음소리 끝없고 온 나라에 일어번지는 체육열풍속에 일터와 마을 어디서나 량만에 넘친 웃음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웃음은 장자의 여유이다. 북부조국에서는 미국과 유엔안보리사회의 제재가 가해지는 속에서도 웃음소리는 더욱 커가고있었다. 무엇을 믿기에 웃음에 넘쳐있는것인가.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이었다.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솟구쳐올라 우리를 못살게 굴고 악한짓을 다해온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승리자의 존엄과 긍지가 강자의 웃음을 짓게 하고있었다. 경제강국, 과학기술강국, 문명강국건설을 다그쳐 사회주의강국으로 솟구쳐오를 그날이 멀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휘황한 래일에 대한 낙관을 넘쳐 더 크게 웃고있었다.

북녘사회에 넘쳐나는 웃음, 그것은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의 환하신 미소에 그대로 비껴있다고 해야 할것이다.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인민의 행복을 꽃피워주시려 로고를 바쳐가시는 그이의 안광에는 환하신 미소가 떠날줄 모른다. 세상을 밝히는 해빛같은 웃음, 거기에는 자기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고 승리에 대한 자신만만함이 있으며 인민에 대한 사랑이 넘쳐흐른다.

내가 만나본 북부조국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원수님만 믿고 따르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만복을 누리게 된다는것이다.

제일 피우기 힘든 꽃이 인민의 웃음꽃이라고 하였다.

인민을 내세우는 이 제도가 좋아서 웃고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이 정치가 제일이라며 사람마다 행복의 웃음꽃을 피우고있었다. 그것을 보면서 북녘사람들이야말로 지구상에 돌도 없는 웃음의 나라에서 사는, 자본주의백만장자들도 부러워할 웃음부자들과고 생각되었다.

재미동포 흥 경 미



후평받는 강냉이가공제품들

—금옥강냉이제품전시장에서—

평양의 문수지구에 자리잡고 있는 금옥강냉이 제품전시장이 문을 연 때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이곳 전시장은 각종 강냉이 제품들을 만들어 내는 생산현장과 그것을 손님들에게 팔아주는 상점 그리고 강냉이가공음식과 음료들을 봉사해주는 식당, 차집 등을 갖춘 종합적인 강냉이제품 생산 및 봉사기지이다. 전시장의 생산 현장에서는 다종 다양한 강냉이가공제품들을 생산하고있는데 무려 80여가지에 달하고있다. 전시장을 찾는 사람들은 강냉이 하나로 것처럼 많은 가공제품들을 만들고있는데도 놀랍지만 그

가공품들이 하나같이 맛이 좋고 영양가도 높으며 저마다 감탄을 표시하고 있다. 강냉이는 영양성분함량이 많은데 비해 소화흡수율이 높지 못한것으로 알려져있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생산하는 강냉이가공제품들은 강냉이의 껍질, 눈을 분리한 다음 현대적인 가공설비로 미분변성하여 만들기때문에 맛이 좋을뿐 아니라 소화흡수율이 매우 높은것이 특징이다. 그래서인지 전시장에서 생산된 강냉이즉석죽수, 강냉이쌀, 강냉이우유단빵, 강냉이단목과자, 강냉이와플 등을 그득히 쌓아놓고 봉사하고있는 1층은 언제나 손님들로 흥성이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2층에는 강냉이랭면과 온면, 강냉이군만두, 강냉이영양단튀기를 비롯한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강냉이가공음식들을 봉사하는 식사실들이 있는데 음식들은 당뇨병과 동맥경화,

로화를 방지하는데도 좋아 중년나이의 사람들과 늙은이들이 더 좋아한다고 한다. 4층에서 봉사하는 강냉이영양차도 맛이 구수하면서도 소화가 잘되어 손님들의 인기를 끌고있다. 평천구역에서 사는 한 가정주부는 《우리 아이들이 강냉이단목과자를 특별히 좋아해서 자주 이곳을 찾곤 한다.》고 말하였다. 서성구역에서 왔다는 한 로인도 《강냉이영양차맛이 아주 독특하다. 쫄강냉이를 삶아놓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훌훌 불며 맛있게 먹던 때가 생각난다.》고 하면서 우리의 땅에서 많이 생산하는 강냉이로 다양한 강냉이가공제품들을 만들어 인민들에게 봉사해주시길 정말 좋라며 환하게 웃었다. 인민들의 날로 높아가는 식생활수준의 일단을 엿볼수 있게 하는 금옥강냉이제품전시장이었다. 본사기자 박철남



은반우에 펼쳐진 랑만의 모습

—인민야외빙상장을 찾아서—

평양의 풍치수려한 대동강변에 인민의 문화정서생활기지로 일떠선 인민야외빙상장이 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로 붐비고있다. 얼마전 우리가 이곳을 찾았을 때에도 흰입김을 날리며 스케트를 타고 신바람이 나서 달리는 사람들의 붉게 상기된 얼굴들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있었다. 바다우를 날으는 갈매기마냥 우아한 톨돌을 펼쳐보이는 처녀애들, 은은하게 울리는 노래선물에 맞추어 은반우에 아름다운 서정을 실어보

는 청년남녀들... 그런가 하면 다정히 손잡고 은반우를 달리는 부부들이며 스케트타기 기초동작을 열심히 익혀가는 사람들, 휘거선수들의 동작을 흉내내다가 엉덩방아를 찧으며 깔깔대는 장난꾸러기 소년들도 눈에 띄었다. 드넓은 공간에 시원하게 펼쳐진 얼음판우에서 제법 스케트기술을 뽐내며 앞서거니뒤서거니 달리는 청년들의 열의도 볼만했다. 빙상장에서 우리는 평양제1중학교에서 왔다는 교원과 초급1학년 학생을 만났다.

《오늘 인민야외빙상장에 간다고 하니 학생들 너무 좋아 빨리 가자고 막 재촉을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자주 와서 스케트를 탔더니 학급적으로 언제나 1등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숙제를 끝내고는 야외빙상장에 와서 스케트를 타곤 합니다.》 누구라없이 유쾌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곳 리혜경봉사원은 계절이 따로없이 늘 초만원이라고, 명절날과 일요일같은 날

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인민야외빙상장이 개업한 때로부터 오늘까지 수많은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이 스케트타기로 문화정서생활을 누리었다고 말해주었다. 한번 오면 회열과 랑만에 휩싸여 시간가는줄 모르는 인민야외빙상장. 자연의 꽃은 한철에만 피지만 인민야외빙상장에서 피어나는 인민의 웃음꽃은 계절을 모르고 활짝 피어나 한겨울에도 《그윽한 향기》를 풍기고있었다. 본사기자 흥범식



사람들이 흔히 락화생을 닭아먹는데 영양학적으로 놓고 보면 삶아먹는 것이 더 유익하다. 락화생은 소화를 촉진시키고 장을 보호하며 기침을 멎게 하는것과 같은 작용을 한다. 또한 락화생의 붉은

뛰어난 지혈작용을 하는 락화생의 속껍질 이 성분은 혈소판의 질과 모세혈관의 수축성을 높이고 응혈인자의 결핍을 막는것과 같은 작용을 하므로 혈소판감소성 자반병 등의 치료에 뚜렷한 효과를 나타낸다. 어떤 사람들은 락화생을 닭아 때 아까운 속껍질까지 태우는데 그러면 거기에 들어있는 유효성분이 파괴된다. 본사기자

단편소설

여을물소리 (8)

글 현명수, 그림 박봉혁

박인철이 침대 옆으로 바투 다가앉았다. 유진은 그것을 촉감으로 느꼈다. 하지만 눈을 뜰 기력조차 없는 그가 어떻게 말을 하랴. 다만 입술을 이지러 뜨렸을뿐이었다. 그 모습은 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하였다. 《여보...》 하고 흐느끼며 속향이 말하였다. 《이보시오 참사선생, 우리 령감님을 나무람 마세요. 우리 령감님은 그때 나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그 죄의식에 한생 쫓기다가 이렇게 심장병을 얻었고 지금은 죽음의 문어구에 이르렀구려. 후회란 언제나 늦게 오는 법이니 어찌겠나요. 그게 우리 불쌍한 령감님의 인생이었는데. 제발 나무람마오.》 《어머님.》 하고 인철은 속향에게 말하였다.

《저는 조국에서 선생님에게 보내는 말을 전하자던것인데... 그만 제가 늦은가 봅니다.》 《조국에서요?...》 (조국에서?...) 《윤결선생에게서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쓰게 못하였 습니다. 그러다나니 선생님 같으신분이 중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조국은 선생님님을 닮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조국은 활짝 문을 열고 어서 오라고 부르 고계십니다. 요전에 제가 찾아갔던 것은 선생님께서 이번에 평양에서 진행되는 조선생명공학연구소의 학술연구회로초청하는 초청장을 드리자던것이었는데 그만... 조국에서는 선생님께서 고향도 방문하고 명승지관광도 하시라

고 선생님과 어머니를 부르 고계십니다.》 《혹-》 속향은 오열을 터뜨렸다. 유진은 몸이 붕 떠오르 는듯싶었다. (내가 환각에 잠겼구나. 참사선생이 정말 그렇게 말했을까? 아니... 환각이다. 이미 천당의 문이 열린 모양이다. 현대 저건 된가? 저건... 그래, 저건 수성천이다. 내 고향 수성천이야! 그래, 저 아이들은 인달이, 영세... 다 있구나. 아, 저기 흰 저고리를 입은 녀인이, 그래, 어머니다. 나의 어머니!...) 입원실안에 있던 속향과 윤결, 인철은 불쑥 울 리는 소리에 놀랐다. 《어머니!》 그들의 시선이 동시에 유진의 얼굴우에 모였다. 유진은 희맑은 눈을 뜨 고 천정을 올려다보고있

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비끼기 시작하였다. 《어머니! 어머니!...》 * *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다음에 봄날이었다. 유진은 속향과 함께 조국으로 가기 위해 비행장으로 향했다. 그가 병원에서 퇴원한 것은 여러달전의 일이었

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비끼기 시작하였다. 《어머니! 어머니!...》 * *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다음에 봄날이었다. 유진은 속향과 함께 조국으로 가기 위해 비행장으로 향했다. 그가 병원에서 퇴원한 것은 여러달전의 일이었

생각하니 더욱 죄스럽고 면목이 없구만. 내가 그때 신혼기분에 들뜬탓에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자네를 외면한것만 같고... 그래서 자네의 인생을 꼭 내 손으로 망쳐놓은것만 같은게... 왜 입자의 덜미를 잡아서라도 함께 귀향하지 못하였단 말인가. 사실 난 그때 입자를 평생 용서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었네. 그래서 뿔스개로 나를 찾아왔을 때도 만나지 않았던걸세. 입자가 몇푼의 돈에 유혹되어 조국의 은혜를 배반한줄로만 알았던거지. 조국이 전후복구와 사회주의건설로 허리띠를 조이면서 학비에 보태라고 보내준 교육원조비를 받고 입자가 흘리던 눈물도 모두 허위였다고 단정해버렸단 말일세. 그러나 어머니조국은 자네의 지난날을 깡그리 용서해주었구만. 뒤늦게라도 고향을 잊지 않고 조국앞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려고 애써온 입자의 그 속죄의 마음을 조국은 그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겨주었던 말일세.

유진이, 오라구. 어서빨리 조국으로 오라구. 와서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구. 우리의 생애가 비록 얼마남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그 여생에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 함께 의논해보자구. 입자가 암스테르담에서 홀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아글타글 애썼다는 사연이 나의 가슴을 찢네. 이제라도 친구의 의리를 다하고 싶네. 오라구, 어서!... 내 입자의 고향에서 기다리겠네. 산골안개 흐르는 아침에 우리 수성천여울물에 발을 담그고 나란히 앉아 우리 고향과 조국과 그리고 후대들에게 물려줄 새로운 열매를 만들어보세나...》 비행장에 도착하여 승강대로 오르는 유진의 가슴은 후두둑 덜뛰고있었다. 그의 귀전에는 벌써 수성천의 여울물소리가 들릴 듯하고 고향산천이 쇠-소리내어 설레이며 반기는 정경이 눈앞에 환히 보이는듯싶었기때문이었다. (끝)



지만 유진은 조국으로 갈 용단을 선뜻 내리지 못하였었다. 족제비도 낮짝이 있다는데 어찌 배은망덕한 이

무 가슴이 미여져서 난 며칠밤을 꼬박 뜬눈으로 새우다가 이렇게 펜을 들었네. 이제야 펜을 들고 자네에게 보낼 글을 쓴다고